

2016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 전망

수출 : 조선·반도체 등 부진 지속, 디스플레이·일반기계 증가세 전환

2016년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하락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주요 산업 대부분이 주력수출 시장인 신흥시장 수요부진, 중국업체 경쟁력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전망되나 전년동기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락세는 다소둔화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반도체 등 대부분 업종에서 부진이 지속되나,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철강 등은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조선은 상선인도 물량의 지속적 감소, 고가 해양플랜트의 계약 취소 및 연기 등이 이어져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가 예상된다. 소재산업군은 석유화학, 정유, 섬유 등이 감소세를 지속하며 철강은 국제가격 및 신흥국 수요 회복으로 전년동기 2.5% 상승이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는 공급 축소, OLED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중국 성장 둔화, 수요감소 및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수출상승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서 10.1%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내수 : 대부분 감소 추세 속 IT기기, 정유 등은 소폭 증가

내수는 대부분 산업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기기, 음식료, 정유 등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 올림픽 특수로 가전,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가 소폭상승예상되며 정유는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증가, 음식료는 가공식품시장 확대 등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반면 소비심리 위축,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일반기계, 조선, 섬유 등의 내수가 부진하고 이러한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수요 진작책으로 시행되었던 개별

소비세 인하가 하반기 종료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 전반적 부진 속, 조선과 반도체 특히 큰 폭 감소

하반기 생산은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한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조선, 반도체 등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은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수주 부진 영향으로, 반도체는 수급 조절을 위한 D램 생산 축소,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의 요인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생산을 견인해오던 내수가 감소세 전환이 예상되면서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유는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물량 증가 등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3.6%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수출회복, OLED 생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할 전망이나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 대부분 하락하나 소비재 산업은 증가 예상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4% 하락이 예상되며 전방산업 생산 부진으로 소재산업군의 하락이 4.3%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도 소비재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양극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에서 기인한다. 가전은 구매여력 부족으로 중저가 제품 선호가 늘어나고 중국 가전업체의 국내 진출 확대, 해외생산 제품 역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정보통신기기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스마트폰 부품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수입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_ 산업연구원 김경유

2016년 하반기, 충남의 주력산업 전망은?

- ✓ 선진권 혼조세, 개도권 침체로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 저성장 체제 지속 + 중국 등 신흥시장 리스크
- ✓ 저유가 기조가 다소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나 신흥시장 경기회복은 다소 시간이 필요



수출 수입 생산 내수 증가요인 / 감소요인



수출 : 신흥시장의 경기침체 지속,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내 할부판매 비용 증가
내수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선수요 실현



수출 : 글로벌 공급과잉 기조 지속
국제가격 회복, 신흥국의 수요 회복
내수 : 기저효과 > 건설용 철강소비 증가



수출 : 중국의 자금률 상승, 중동업체 등 경쟁력 상승 < 수출단가 상승 = 낙폭둔화
내수 : 전방산업(자동차, 가전 등)의 생산 부진, 범용제품 생산 감소(석유제품)



수출 : 일본업체 생산중단, 중국의 생산수율 부진 등 공급 축소와 OLED 수요 증가
내수 : OLED 스마트폰 판매 확대, 대형 UHD TV 가격 인하로 수요 증가



수출 : 중국 성장 둔화 · 현지생산 증가, 수출 상승으로 인한 가격하락
내수 : 반도체 수요 견인 제품의 부진 > 웨어러블디바이스, IoT 등 신산업 수요 성장



주 : 1) 전망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정유는 석유제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